

---

#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

제4호  
2021년 8월

## 전문가 기고

ESG 평가에 대한 이해와 활용

## 주요 이슈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특징  
한국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특징

## ESG 동향

유럽 그린딜과 Fit for 55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 주요 통계



# ESG 평가에 대한 이해와 활용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윤진수 본부장

책임투자(ESG 투자)는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적 요소 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투자방식을 의미한다. 최근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GSIA)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책임투자 규모가 35.3억 달러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6년 대비 55%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책임투자 규모가 확대될수록 투자대상기업의 ESG경영 수준과 관련 정보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세계에 수백개의 ESG 평가기관들이 독자적인 평가모형을 통해 기업의 ESG 수준을 진단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정보이용자 측면에서는 어느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는게 도움이 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또한 평가를 받는 피평가기업 입장에서도 수많은 평가기관의 평가에 모두 대응하기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도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ESG 전문 평가기관 외에도 신용평가사나 언론사 등 여러 기관에서 기업의 ESG 수준을 진단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표준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줄여주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평가 기준의 표준화 보다는 기업의 ESG 정보공개 표준화 노력을 통해

평가에 활용되는 정보의 충실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ESG라는 요소가 기업별, 산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할 뿐 아니라 평가기관의 철학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평가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ESG 평가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우선 ESG 평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이 필요하다. ESG 경영의 중요성과 함께 기업의 ESG 수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다보니 기업마다 ESG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ESG 전담조직이나 위원회 설치 같은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받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기업에 내재된 ESG 관련 리스크를 점검·관리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ESG 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ESG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데만 집중하다보면 기업 본연의 ESG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도 기업자원을 할애할 수 있게되며 이는 오히려 ESG경영에 대한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ESG평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평가결과를 통해 자사의 ESG경영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활동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 시각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평가기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양한 평가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평가기관마다의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모든 평가기관에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ESG에 대한 평가기관이 보유한 철학과 평가기관으로서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평가기관을 선별할 수 있다. 평가기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관점이 기업의 중장기 ESG 정책과 부합하는지, 평가기관에서 평가모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대상기업과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대상기업과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지 등의 기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모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에서 주요 평가기관을 선정하였다면 해당 평가기관의 평가모형과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평가에 필요한 적합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한편, 기업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ESG 경영 성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ESG 경영 전략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지침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ESG 평가에 대한 기업의 부담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을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ESG 평가를 활용한다면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좋은 나침반 역할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온라인세미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사: 박성훈 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li> <li>핵심내용: ESG 기본 개념 및 ESG 경영의 7가지 특징</li> </ul>	 <p>온라인세미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사: 김정남 삼정KPMG 상무</li> <li>핵심내용: 이해관계자, 규제, 금융 등의 관점에서 ESG 경영의 필요성</li> </ul>	 <p>온라인세미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사: 임대용 ECO&amp;PARTNERS 2C 대표이사</li> <li>핵심내용: ESG 금융, 탄소중립, 녹색분류 체계 등 국내외 주요 이슈</li> </ul>
<p>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들을 위한 ESG 교육인 'ESG A부터 Z까지' 영상을 홈페이지(www.korcham.net)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p>		

#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특징



김경훈 연구위원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은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기업들이 ESG 성과를 공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표적 평가기관들의 평가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①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전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기관들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평가기관으로 MSCI, S&P, Bloomberg, FTSE Russell, Thomson Reuters, Sustainalytics 등을 들 수 있다.

MSCI는 1999년부터 기업의 ESG 평가를 실시해 왔다. MSCI가 제공하는 ESG 평가등급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ESG 평가지표 중 하나다.

MSCI는 공시 자료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정부 DB, 매크로 데이터 등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전세계 8,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관련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MSCI의 ESG 평가는 10개 주제, 35개 핵심 이슈 중심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문은 기후변화, 천연자원, 오염 및 폐기물, 환경적 기회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탄소 배출, 기후변화 취약성, 생물다양성, 수자원 관리, 유해물질 배출 등의 이슈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부문은 인적자원, 제품에 대한 책임, 이해관계자 반대, 사회적 기회 등 4개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인적자원 개발, 제품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지역사회와의 관계,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강화 등이다. 지배구조 부문은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 행동을 주제로 이사회 다양성, 경영진 보수, 기업윤리, 경쟁제한 행위, 반부패 등을 평가한다.

MSCI는 영역별 가중치를 달리해서 점수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AAA~CCC의 7개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전체 평가등급 외에 각 ESG 영역별 등급도 부여한다.

MSCI ESG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평가항목)
E	기후변화	탄소 배출, 제품 탄소 배출, 기후변화 대응 등
	천연자원	수자원 관리, 원재료 조달, 생물다양성 및 토지이용
	오염 및 폐기물	유해물질 배출, 전력 사용, 포장재 사용
	환경적 기회	친환경 기술·건축물, 재생에너지 투자
S	인적자원	노무관리, 인적자원 개발, 보건·안전, 노동 규범
	제품에 대한 책임	제품품질, 화학안전, 금융상품 안전, 데이터 보호 등
	이해관계자 반대	분쟁광물 및 자원 사용
	사회적 기회	정보통신·금융·의료 등에 대한 접근성 강화
G	기업 지배구조	이사회 다양성, 임원 보수, 소수·통제구조, 회계
	기업 행동	기업윤리, 경쟁제한적 행위, 조세 투명성, 부패 등

※ 자료 : MSCI(ESG Ratings Key Issue Framework)

## ② S&P Dow Jo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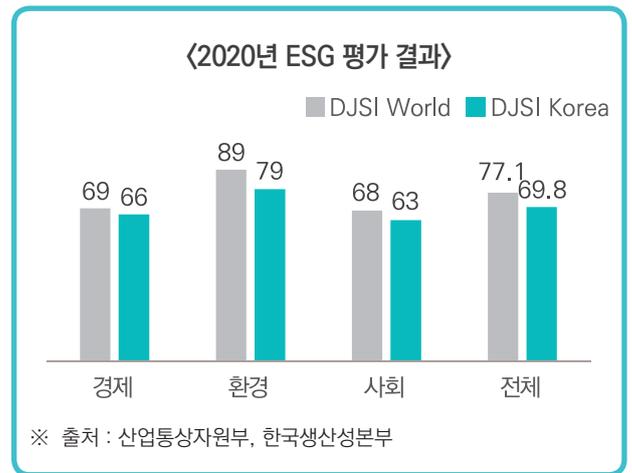
S&P Dow Jones는 1999년부터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성과 등을 종합해서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대상으로 80~120 문항에 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설문은 공통 항목과 산업별 항목으로 구분되며 가중치를 적용해서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DJSI 평가는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윤리경영 관련 내용이 공통 평가항목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 보유, 노동지표, 기업시민의식, 사회 보고서 공개 등이 공통 평가항목이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환경경영 보고가 공통 평가항목이다. 산업별 항목은 각 산업별로 중요한 지속가능경영 이슈에 따라 평가항목이 다르다.

국내기업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글로벌 기업에 비해 미흡하다. 지난해 글로벌 기업은 평균 77.1점인데 비해 한

국 기업 평균은 69.8점이었다. 특히 환경부문에서 글로벌 기업과 점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평가기관들이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면서 투자 의사 결정에 혼선을 주고 평가받는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이사회와 세계경제포럼을 중심으로 ESG 보고기준 표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차원에서의 ESG 보고 및 평가기준 표준화 논의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DJSI ESG 평가지표

평가항목(가중치, %)						
경제적 측면	지배구조 (6.0%)	리스크 관리 (6.0%)	윤리경영 (6.0%)	산업별 항목		
	환경적 측면			산업별 항목		
	환경 보고 (3.0%)					
사회적 측면	인적자원 개발 (5.5%)	인적자원 보유 (5.5%)	노동지표 (5.0%)	기업시민의식 (3.0%)	사회 보고서 (3.0%)	산업별 항목

※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 한국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특징



이경인 선임

국내에서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등의 기관들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기관별 평가관점과 세부항목의 차이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 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1년부터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해 매년 10월에 발표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 공시 자료, 언론 정보, 감독기구·지자체 자료 등을 활용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 모형은 국제규범 및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 환경을 반영해서 만들어졌다.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핵심이슈들이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있다.

ESG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는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관리, 폐기물 저감 실적, 환경정보 공개 여부 등을 지표로 평가한다. 사회 관련 평가지표로는 노사관계, 공정거래 및 반부패 원칙, 소비자 안전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지배구조는 소유구조, 배당수준, 이사회 운영, 공시 적절성 등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코스피 상장사와 코스닥 상장사 일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ESG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7단계(S, A+, A, B+, B, C, D) 등급을 부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ESG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를 받은 908개 기업 중 71.7%(651개)가 'B' 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 등급은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고, 비재무적 리스크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특히 환경부문에서 'B' 이하 등급을 받은 기업 비율이 80.8%로 사회부문(59.4%), 지배구조부문(59.7%)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 부문에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모형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경영</li> <li>· 환경성과</li> <li>· 이해관계자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li> <li>· 협력사 및 경쟁사</li> <li>· 소비자</li> <li>· 지역사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권리 보호</li> <li>· 이사회</li> <li>· 감사기구</li> <li>· 공시</li> </ul>
평가 지표	최대 50문항	최대 52 문항	자산 2조 원 이상 : 81 문항 자산 2조 원 미만 : 71 문항

※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② 서스틴베스트

서스틴베스트는 2006년부터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매년 12월에 발표하고 있다.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중 시가총액 기준 상위 800개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 정보, 정부 공개 정보, 미디어 정보 등을 활용해서 기업의 ESG를 평가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설계했다. 환경영역에서는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친환경 혁신역량,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생산공정 및 온실가스 관리, 친환경 공급망 관리 등이 핵심지표이다.

사회영역에서는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한다. 노사관계 관리,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고객정보 보호,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기업의 성과를 이해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있는지 등을 주로 평가한다. 경영권 보호장치, 공시 위반, 이사회 선임 및 구성, 지속가능경영 보고 등을 평가지표로 선정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산업별 특성 등을 반영해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기업의 ESG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7개 등급(AA, A, BB, B, C, D, E) 중 하나가 기업에게 매겨진다. 서스틴베스트는 C 등급 이상을 투자가능 기업, D와 E 등급은 투자배제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서스틴베스트의 평가를 받은 999개 기업 중 A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이 244개로 전체의 24.4%를 차지했고, 투자배제 기업으로 분류되는 등급(D, E)을 받은 기업은 74개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신용등급평가와는 달리 비재무정보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ESG 평가의 특성상 평가기관에 따라 평가결과가 차이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ESG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자금 조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각 기관별 평가기준과 특징을 감안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지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카테고리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활동</li> <li>· 생산공정</li> <li>· 공급망 관리</li> <li>· 고객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자원 관리</li> <li>· 공급망 관리</li> <li>· 고객관리</li> <li>· 사회공헌 및지역사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의 권리</li> <li>· 정보의 투명성</li> <li>· 이사회 구성 및 활동</li> <li>· 이사의 보수</li> <li>· 관계사 위험</li> <li>· 지속가능경영 인프라</li> </ul>
평가지표	8개 지표	13개 지표	19개 지표

※ 자료 : 서스틴베스트

# 유럽 그린딜과 Fit for 55



김예나 연구원

최근 EU 집행위가 탄소감축 입법안을 발표하면서 유럽 그린딜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EU의 그린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 규제 강화 등에 대비해야 한다.

## ①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2019년 EU 집행위가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유럽 그린딜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이면서 성장전략이다. EU는 그린딜을 통해 에너지·자원 소비를 늘리지 않고 환경은 보호하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그린딜에서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의 탈탄소화, 신산업 전략, 지속가능한 운송, 건축분야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제고, 식품안전 및 생태계 보전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석탄·가스 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자동차·항공·해운 등 운송수단의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식품안전을 강화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 ② 핏 포 55(Fit for 55)

EU 집행위는 지난 7월 탄소감축 입법안인 '핏 포 55(Fit for 55)'를 공개했다. 핏 포 55는 2030년까지 EU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다. 입법안에는 배출권거래제 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자동차·항공 부문에서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업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U는 2030년까지 신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일 계획이다.

유럽 그린딜이 구체화되고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EU 지역 등에서의 관련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 Fit for 55 주요 내용

가격 결정	목표 설정	규정 강화
1. 항공 분야 배출권거래제 강화 2. 해운, 육상운송 및 건축물분야 배출권 거래제 신설 3. 에너지 조세지침 개정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5. 노력분담규정 개정 6.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삼림 규정 개정 7. 재생에너지지침 개정 8. 에너지효율화 지침 개정	9. 승용차 및 승합차 탄소배출 규제 기준 강화 10. 대체연료인프라규정 개정 11. 항공운송 연료 기준 마련 12. 해상운송 연료 기준 마련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김민성 연구원

ESG에 대한 관심과 함께 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 정책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① 녹색채권과 그린워싱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녹색채권 발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0년 31개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녹색채권 발행 종목수가 올해 6월말 현재 94개에 달하고 있다.

녹색채권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중국 발전회사 텐진 SDIC 진닝이 1억 5천만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석탄 화력발전소 건립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지속가능 금융상품들에 그린워싱이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ESG 펀드 20개 중 6곳은 미국 최대 정유사인 엑손모빌에 투자했고, 2곳은 아람코, 1곳은 중국의 석탄 채굴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②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지난해 정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그린워싱 채권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고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및 녹색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은 녹색채권 발행 자금이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선정 및 자금 관리, 사후보고까지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녹색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 및 관리, 순환자원으로의 전환 등 6가지 환경목표에 부합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EU 지역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기업들도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이나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

### 녹색채권 4가지 핵심요소와 주요내용

① 조달자금의 사용	②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③ 조달자금 관리	④ 사후보고
<p>6가지 환경목표에 부합되는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후변화 완화</li> <li>② 기후변화 적응</li> <li>③ 천연자원 보전</li> <li>④ 생물다양성 보전</li> <li>⑤ 오염 방지·관리</li> <li>⑥ 순환자원으로의 전환</li> </ul>	<p>투자자 공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환경개선 목표</li> <li>② 녹색 프로젝트 해당여부 판단 절차</li> <li>③ 리스크 관리 절차, 적격성 판단 기준 및 배제 기준</li> </ul>	<p>녹색프로젝트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적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계좌 또는 포트폴리오 마련 등</li> <li>- 대출 및 투자 운용 관련 내용의 증명</li> </ul>	<p>&lt;공개항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목록</li> <li>- 프로젝트별 배분 금액</li> <li>- 예상되는 환경개선 효과</li> </ul> <p>&lt;공개방법&gt;</p> <p>웹사이트 또는 채권 상장 증권거래소 등</p>

※ 자료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 ESG 통계 지표

2021년 7월말 기준

## 1. ESG 금융

###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019	2020	'2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녹색채권	21	31	43	55	69	85	94	105	122
사회적채권	178	471	488	505	538	572	599	632	663
지속가능채권	8	44	46	58	69	93	113	124	144

###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잔액

(단위 : 천억 원)

	2019	2020	'2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녹색채권	21	30	43	57	72	90	103	113	129
사회적채권	246	736	766	786	847	918	979	1,018	1,079
지속가능채권	21	54	56	74	80	99	105	120	129

## 2. ESG 평가

### (1)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2021년도 상반기\* 등급 분포

(단위 : 개)

S	A+	A	B+	B	C	D	총 기업 수
-	14	91	147	318	309	29	908

\* 2021년 1,2차 등급 조정 결과 반영

### (2) 서스틴베스트 2021년도 상반기 등급 분포

(단위 : 개)

AA	A	BB	B	C	D	E	총 기업 수
68	174	297	193	193	58	14	997

## 3. 기타 통계

### CDP\* Climate Change 프로그램 참여 기업 수\*\*

(단위 : 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	93	87	90	62	73	94	110	150
전 세계	2,345	2,450	2,450	2,418	3,236	4,429	5,192	6,181

\* 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정보 제공 및 설문 응답(Submitted) 기업 수 기준

## 2021년 ESG 뉴스레터 주요 이슈 목록

5월	기후변화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의 개념 및 구성요소	9월	ESG 경영 전략   Supply chain과 ESG
6월	주요국 기후변화 관련 규제·정책 동향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 계획	10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임팩트 투자   사회적 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7월	국내외 ESG 정보공개 의무화 동향   글로벌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 및 표준화 동향	11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스투어드십 코드와 주주행동주의
8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특징   한국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특징	12월	사회적 가치 측정과 활용   지속가능 금융 현황 및 전망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특징

김경훈 연구위원  
T. (02)6050-3144 | E. khkim1206@korcham.net

### 한국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특징

이경인 선임  
T. (02)6050-3132 | E. kyung@korcham.net

### 유럽 그린딜과 Fit for 55

김예나 연구원  
T. (02)6050-3141 | E. yekim@korcham.net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김민성 연구원  
T. (02)6050-3139 | E. mskim62@korcham.net

### ESG 통계 지표

이진 연구원  
T. (02)6050-3143 | E. jlee99@korcham.net